

전북도 뿌리기업 5곳과 투자 협약

HIT 오토모티브 등 2013년까지 군산·김제 입주

전북도는 30일 도청에서 두리엔지니어링㈜ 등 뿌리기업 5곳과 기업이 전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뿌리산업은 주조와 금형,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용접 등 6개 업종을 통침하며 소재를 부품화해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초 공정산업으로 자동차와 조선, 기계산업, 항공 산업 등의 기초가 됐다.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동차 프레스 금형 업체인 HIT 오토모티브와 신영이노텍을 비롯해 신우씨엔씨(표면처리), 웨이트(용접기)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의산보석박물관- 코레일 관광 MOU 체결

의산보석박물관(관장 이산재)과 코레일은 최근 광주역에서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보석을 테마로 한 철도 여행 관광상품을 공동개발하고, 의산시의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를 적극 홍보해 상호 관광객 유치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민란 광주역장은 “광주역을 이용하는 철도 관광객들에게 보석과 문화관광의 도시 의산을 소개할 수 있

/전북취재본부=류정영기자 ryu0418@

의산시, 왕궁개선사업 국비 조속지원 건의

의산시는 30일 왕궁 정착농원 환경 개선사업 접수가 의산을 찾은 윤종수 환경부 차관에게 국비의 대폭 지원을 건의했다.

윤 차관은 이날 이창서 국립생태원 추진기획단장, 이운택 전주지방환경청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왕궁 개선 사업 현장을 방문해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유기상 익산시 부시장은 “환경 개선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

도 사업예산 130억 원 중 121억 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익산시 왕궁면 왕궁정착농원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를 차단하기 위해 이 일대의 축사를 사들여 철거하고 생태하천과 바이오 순환림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15년까지 총 116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현재 한센인이 거주하는 왕궁 정착농원에는 익산과 금오, 신촌 등 3개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

남원시 봉사 참여 확산 ‘1·1·4 물결운동’ 캠페인

남원시 지원봉사센터(센터장 하진상)는 지난 27일 운봉을 지리산 허브밸리에서 기관·단체·청소년 등 지원봉사자 50여명과 함께 지원봉사 확산을 위해 ‘1·1·4 물결운동’ 캠페인을 펼쳤다. ‘1·1·4 물결운동’은 한 달에 한번 4시간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정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는 지원봉사 참여와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이다.

현재 한센인이 거주하는 왕궁 정착농원에는 익산과 금오, 신촌 등 3개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

부동산 경매,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경매에 관한 모든 상담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신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법원회관 옆 건물) 또는 (지신 주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금주의 추천 물건 대표이사 010-7570-7525

수기동 [12층광호텔] 대184㎡ 건7642㎡ 김정기 90억 최저가 50억

신인동[4층근린시설] 대385㎡ 건1191㎡ 김정기 8억8천 최저가 3억9천

광명동[노인병원] 대2400㎡ 건1018㎡ 김정기 100억 최저가 45억

일곡동 [원룸] 대199㎡ 건345㎡ 김정기 3억1천 최저가 2억2천

목포제인동 [모텔] 대830㎡ 건2767㎡ 김정기 25억2천 최저가 11억3천

담양금성[온천] 대3527㎡ 건1082㎡ 김정기 156억8천 최저가 109억7천

여수둔덕[오피스텔] 대549㎡ 건2510㎡ 김정기 17억8천 최저가 7억9천

유동화 자산매각 대표이사 010-7570-7525

광주목동 공장 대지 (지식경제부 임대) 건물879평 김정기 15억7천 매매가 89억5천 (협의후결정)

곡성석곡 공장 대지 8754평 건물 2891평 김정기 44억3천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전주원주 봉동 공장 대지 7125평 건물 5465평 김정기 136억 매매가 85억 (협의후결정)

전주 의약물류센터 대지 4112평 건물 1749평 김정기 85억5천 매매가 65억 (협의후결정)

전주 헬스타운 대지 427평 건물 716평 김정기 22억6천 매매가 9억5천 (협의후결정)

전남곡성 재활용 공장 (PP,PE수출) 대지 2,000평 / 건물 500평 영업권 및 자산 일체 (현재 희자 영업중)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근린시설/원룸 김태호전무이사 010-684-3886

숙박시설/상가 김규석이사 010-6654-6888

공장/토지 정현노이사 010-5879-0005

수지동 대151,135 6억5천 1억1천 단층근린시설

광동 대239,256 4억7천 3억2천 원룸14,400㎡

임동 대199,235 3억7천 2억2천 원룸12실

신동 대385,21191 8억9천 39억7천 4층근린시설

기동 대228,2103 6억7천 3억7천 4층오피스텔

광동 대191,2135 7억5천 3억7천 4층오피스텔

임동 대190,2135 6억7천 1억4천 단층근린시설

기동 대202,2377 2억7천 1억7천 디자인7구

임동 대227,2103 7억5천 3억7천 2층오피스텔

임동 대241,2118 1억5천 6천7백 2층근린시설

임동 대264,2192 7억7천 3억7천 5층오피스텔

임동 대1112,2181 4억4천 3억8백 단층근린주택

임동 대236,21512 5억7천 3억9천 12층상당층주택

임동 대365,21305 2억9천 1억7천

아파트/빌라 김태호전무이사 010-684-3886

주택/재개발 김규석이사 010-6654-6888

크린주택 정현노이사 010-5879-0005

병원, 교회, 사옥, 모텔, 상가 등 원하시는 부동산을

접수해 주시면 가장 빠른 시간안에 가장 좋은 조건으로

찾아드립니다. ■ 상담 및 접수 010-7570-7525

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 경매전문가(실전)과정’

2학기(15주) 수강예약 2011년 8월 31일까지 마감

물건중심의 실전교육안 정원 50명 · 상담 및 서류접수 236-3400

영화·드라마 촬영지 전북이 최고

올 들어 ‘활’ ‘고지전’ ‘무사 백동수’ 등 37편 제작

등으로 올해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군산과 김제 지역에 입주한다.

이들 기업은 총 115억 원을 투자해 총 280명을 고용하며, 연간 600여 원의 매출을 옮길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김제지역 선진산업 단지와 군산 제2산업 단지에 뿌리산업 생산 기반 전문 단지(39만여㎡)와 도급 협동화 단지(3만여㎡)를 조성해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 업체를 동반 입주시기로 했다.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자동차 프레스 금형 업체인 HIT 오토모티브와 신영이노텍을 비롯해 신우씨엔씨(표면처리), 웨이트(용접기)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영화와 드라마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0일 전주영화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북지역에서 촬영된 영화와 드라마는 모두 37편이다.

이 가운데 영화는 28편으로 ‘최종병기 활’, ‘블라인드’, ‘고지전’, ‘모비딕’, ‘마이웨이’ 등이 대표적

이다.

드라마에서는 ‘포세이돈’, ‘싸인’, ‘무사 백동수’, ‘터미널’ 등 9편이 활영됐다.

영상위 지수영 홍보팀장은 “전북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데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의 지원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영화 촬영의 적자로 끊히고 있다”면서 “더 많은 작품을 유치해 전북을 ‘영화의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영화의 지수영 홍보팀장은 “전

북은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데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등의 지원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영화 촬영의 적자로 끊히고 있다”면서 “더 많은 작품을 유치해 전북을 ‘영화의 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고창향교 석전대제 봉행

고창향교는 30일 대성전에서 전통 유교의식인 추계(秋季) 석전대제(釋奠大祭)를 봉행했다. 고창향교는 공자와 제자를 비롯해 유학자 설총, 최지원 등 명현 18위의 위패를 봉인해 놓고 봄과 가을에 석전대제를 연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

환경오염 논란 새만금산단 매립토 석탄재

군산항 배사관통해 공급 추진

용도 가격을 제시하고서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다음달부터 해상운송을 통한 석탄재 공급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앞서 새만금산단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은 서천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온 석탄재 200만㎥을 연약지반인 새만금산단을 매우는 데 사용하기로 하고

고 30일 밝혔다. 군산항에 환경단체는 “중금속을 함유한 석탄재를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새만금에 쏟아부으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예 냈다.

현재 서천발전소 액적장에 있는 석탄재를 배로 군산항으로 실어와 펌프방식의 배사관(7km)을 통해 새만금산단 조성 현장으로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군산 지역 환경단체는 “중금속을 함유한 석탄재를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새만금에 쏟아부으면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 서주시 대표단, 정읍시 방문 우의 증진

지난 29일 ‘제13회 한·일 지방정부 교류회’ 참석자 우리 나라를 찾은 중국 서주(徐州)시 대표단이 정읍시를 방문, 양시간 우의증진을 꾀했다.

전남 단장을 비롯한 6명의 대표단은 김생기 시장을 예방하고 환담을 나눴다.

서주시와 정읍시는 지난 2000년 자매결연 이후 초등학교와 의회, 상공인 등의 활발한 교류를 갖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2005년도에 사방의 협력 참여 우수 표창을 받기도 했다”며 “국민에 대한 봉사 기회를 통해 서로의 자세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박금석기자 parkks@

고창군립도서관·성호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고창군립도서관과 고창군립 성호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한다.

모든 행사는 무료로 진행되며 책갈피 만들기와 책 만드는 이야기는 9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전북취재본부=음창영기자 young@

지평선 축제 ‘가장 큰 떡 만들기’ 도전

은 참여자가 나눠 먹고 일부는 지역의 소외계층에 전달한다.

이번 행사는 축제에 주민과 관광